

## 백혜경

# 공룡과 공룡동생

129(목)~131(토) 목금 7시 30분 / 토 3시

쇼케이스 95분

\*아티스트 토크 131(토) 3시 공연 후

아티스트 토크는 두산아트센터 팟캐스트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www.poddbang.com/dy/7508](http://www.poddbang.com/dy/7508)

두산아트랩은 관객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공연 관람 후 온라인 관객 설문에 참여해 주세요.

작성해주신 의견은 창작자에게 전달되어

작품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 관람 전 알아두면 좋은 정보

### 1) 공연 형식

본공연에 앞서 여러 방향의 실험과 창작 과정을 공유하는  
쇼케이스입니다. 배우들은 세 개의 보면대를 사용합니다. 대본을  
울려두고 낭독하기도 하고, 보면대의 위치를 바꾸거나 보면대  
자체를 활용하여 장면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 2) 등장물 소개

총 세 명의 존재가 등장합니다. 경계선지능, 느린학습자로 불리는  
언니 '공룡', 과, 그리고 공룡의 동생 '재영'입니다. 이 중 '과'는  
해설자의 개념에서 출발했습니다. 공룡 자매와 나란히 서서  
이야기를 함께 겪어내는 존재로, 장면에 따라 또 다른 재영이  
되었다가, 과거를 마주하는 현재의 재영이 되기도 하며, 당시 꼭  
필요했던 곁이나 목격자가 되기도 합니다.

야! 공룡의 이름은 재미입니다. 극 안에서 이름이 불리는 순간은  
없지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팀원들이 지어줬는데 무척 마음에  
듭니다.

### 3) 역할 바꾸기

한 명의 배우가 하나의 역할을 고정해서 맡지 않습니다. 모든 배우는  
극의 흐름에 따라 공룡, 과, 재영(공룡동생)의 역할을 교차하며  
연기합니다. '비극'을 개인이 견딜 수 있는 크기로 만드는 것, 함께  
견딜 수 있는 필요한 결들을 만드는 것, 이들이 겪는 일들이 더이상  
혼자 감당되지 않도록 서로를 알아보고, 알아차리고,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을 시도하고 싶었습니다.

### 4) 주안점

공룡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그 발화는 오랜 시간 그와 함께 살아온  
공룡동생의 시선과 해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언니를 통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동생의 이야기입니다.

### 작가노트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품어온 공룡과 공룡동생을 와장창 꺼내 놓은  
자전적 희곡입니다. 자기 소멸 시뮬레이션을 반복하며 해방감을  
탐하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쉬고 싶어서 스스로 숨을 막고  
프리풀(Free 자유낙하)을 상상하는 재영과, '괴상하고 낯선' 모습으로  
'공룡'이라 불리던, 그래서 진짜로 공룡이 되어버린 언니가, 환상의  
쓰레기 섬에서 만나고(만나지고), 언니의 잃어버린 송곳니를 찾으러  
모험을 떠나는, 구하지 못한 것과 구할 수 없는 것을 지나며 길을  
내어보는 이야기입니다.

공룡과 공룡동생은 여전히 '정상'과 '장애', 폭력과 회복, 피해와 가해,  
살고 싶은 욕망과 떠나고 싶은 충동 사이에 있습니다.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언니는, 영상편집 공부를 열심히 하고요,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합니다. 카페에서 아이스 카라멜 마끼아또를 주문하고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깔깔대요. 동생은 언니의 곁에서 글을 씁니다.  
연기를 하고, 피아노를 치고, 강아지를 안습니다. 끝을 원하면서도  
무언가를 만들고 사랑하는 아이러니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돌봅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외로움을 견디며 떠난 이들을 보다가  
울고, 남은 이들을 오래 떠올립니다. 가깝거나 먼 존재의 죽음과

앞으로도 계속될 죽음을 속에서 이 글을 쓰는 저는, 이제는 좀 사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기로 합니다. 이후에도 이어질 내 삶을,  
내 주변을, 조금은 덜 멋지더라도 덜 해치면서 살아갈 방법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이 이야기를 지어 주신  
만나라 와 주신 모든 분께 아주아주 커다란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기획 두산아트센터  
작·구성 백혜경

출연·공동창작 경지은 백혜경 이미라  
협력창작자·막오퍼레이터 백소정  
드라마터그 장영 장기영  
움직임 허윤경  
기술·자막제작 이효진  
무대·소품·오브제 미팍  
무대팀 김하니  
조명·조명오퍼레이터 윤혜린  
조명팀 김효민 나홍선 양상모 이상혁 전수진  
사운드 지미세르  
사운드오퍼레이터 양대은  
사전음성소개제작 구지수 김내원 김혜영  
프로덕션 무대감독 이지혜

[두산아트랩 공연 2027 공모 안내]  
일정 2026.5.4~2026.5.28  
대상 40세 이하, 한국 국적 예술가,  
장르 제한 없음  
\*자세한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두산아트랩은 40세 이하 젊은 예술가들이  
새로운 작품을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